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2.7.18

1 주간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1W	1M	3M	6M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KOSPI	-0.8	-4.5	-13.4	-18.6	9.7	8.5	0.9	0.8	2.3	2.4	
통신업종	-1.0	-1.2	-7.5	0.3	8.6	7.7	0.7	0.7	5.9	6.3	
SK텔레콤	-0.9	3.1	-10.1	-4.1	11.1	9.7	1.0	0.9	6.4	6.7	
KT	-0.1	0.7	4.1	18.1	7.5	6.9	0.6	0.6	5.8	6.2	
LG유플러스	-2.8	-12.8	-16.1	-9.1	7.1	6.4	0.6	0.6	5.4	6.0	
AT&T	-1.1	6.1	5.3	0.3	8.1	8.2	0.9	0.8	6.3	5.7	
Verizon	1.0	4.1	-5.2	-4.2	9.5	9.2	2.3	2.0	5.1	5.2	
T-Mobile	1.2	7.7	3.3	26.6	48.8	21.9	2.4	2.3	0.0	0.0	
NTT	2.2	2.7	4.4	19.3	12.4	11.3	1.7	1.6	3.0	3.1	
KDDI	2.5	1.4	4.5	23.5	14.8	13.9	2.0	1.8	2.9	3.0	
Softbank	-1.9	10.6	-7.0	-4.2	17.2	19.7	0.8	0.8	0.8	0.8	
China Mobile	0.1	-1.7	-11.6	-3.2	7.2	6.7	0.7	0.7	8.6	9.8	
China Unicom	-1.1	0.3	-4.9	-9.1	6.1	5.4	0.3	0.3	8.2	9.8	
China Telecom	1.9	1.5	-12.8	-5.6	7.4	6.6	0.5	0.5	8.8	10.3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SKT 48.0% (+0.4%p WoW, +0.6%p MoM)
KT 44.9% (+0.2%p WoW, +1.0%p MoM)
LGU+ 37.5% (+0.2%p WoW, -0.3%p MoM)
SKT, KT, LGU+ 외국인 순매수 기록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7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2%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KT Seezn과 CJ ENM Tving의 합병안 결의. OTT 경쟁력 강화로 Tving 가입자 성장이 재개될 전망
미국 FCC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 시 주파수 분할 임대 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
국내 기관은 SKT, KT, LGU+ 순매도. 외국인은 SKT, KT, LGU+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21일(목) AT&T, 22(금) Verizon 2Q22 실적 발표 예정
과기정통부-통신3사 CEO 간담회 이후 SKT는 8월 5G 중간요금제(월 59,000원/24GB 제공) 출시 신고서 제출
LGU+, 3.40~3.42㎞ 할당 확정. SKT, 정부에 3.70~3.74㎞ 할당 요청
외국인 지분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KT가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추가 흐름을 이어갈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0	11 이종호 과기부 장관, 통신3사 CEO 간담회 개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AT&T 2Q22 실적발표	22 Verizon 2Q22 실적발표	23

3 주간 뉴스

▶ 티빙·시즌 통합...국내 1위 OTT 나온다 (한국경제)

- CJ ENM과 KT가 각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과 시즌 통합을 공식화
- 티빙이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은 티빙 대 시즌이 1대 1.5737519
- KT스튜디오지니는 합병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1일
- ⇒ CJ ENM과 KT는 모바일·인터넷TV(IPTV)·TV 채널 등으로 전방위 협력을 이어갈 전망
- ⇒ 콘텐츠 제작·유통, 시청 품질 서비스 고도화 등을 함께 할 계획

▶ 과기정통부, 3.40㎞~3.42㎞ 주파수 LGU+에 할당 (서울경제)

- 3.40㎞~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 결과, LGU+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
- 총 1,521억원에 주파수를 추가 할당, 과기정통부가 올해 초에 검토한 '1355억원+α'보다 높은 가격
- 할당 받은 주파수는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 LGU+, 내년 말까지 13만 국, 2025년 말까지 15만 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 ⇒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기존 2024년 6월에서 6개월 단축시켜야 할 것

▶ K메타버스 선두주자 SKT '이프랜드, 연내 해외 진출' (파이낸셜뉴스)

- '이프랜드(ifland)'가 '이프랜드2.0' 단계로 돌입을 비롯해 연내 글로벌 진출을 타진
- 지난 6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870만을 돌파, 1000만 다운로드 수 달성 가까워져
- 볼류메트릭 기술(실사 기반 입체 영상을 만드는 기술) 접목한 메타버스 콘서트 등 특화된 콘텐츠 제공
- ⇒ 연내 사용자 참여 서비스 강화를 위해 메타버스 내 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안착시킬 계획
- ⇒ 유럽, 북미, 중동, 아시아 등 주요 지역별 대표 통신사들과 협력, 주요 지역부터 순차적 출시 예정

▶ 과기정통부, 5G 중간요금·청년 데이터 지원으로 통신비 부담 줄인다 (디지털데일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정부 5대 핵심과제를 발표, 그중 하나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제시
- 통신사의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올 8월 중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
- SKT, 8월 초 출시 목표로 5G 중간요금제(월 59,000원/24GB 제공) 신고서 과기정통부에 제출
- ⇒ 내년 상반기에는 어르신 전용 요금제와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맞춤 지원을 확대할 예정
-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위해,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해 25년까지 1,635마을에 추가 구축

▶ LGU+, 600兆 구축시장 '정조준'... '2025년 가입자 1000만명 확보' (조선비즈)

- LG유플러스가 신규 구축 플랫폼을 출시하며 구축 경제 시장에 본격 진출
- 선택 제한과 요금 부담, 해지 불편이 없는 정책을 앞세워 차별화에 나설 방침
- 구축 플랫폼인 '유독'을 공개, 제공하는 분야는 OTT, 배달, 식품, 교육, 쇼핑 등 31종
- ⇒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는 100종 이상으로, 구매 상품도 5,000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
- ⇒ LG유플러스는 2025년까지 유독 가입자 1000만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美FCC, 주파수 분할 임대 허용한다 (ZDNet Korea)

- 연방통신위원회(FCC), 강화된 경쟁인센티브 프로그램(ECIP)을 가동키로 했다고 밝혀
- 주파수 자원을 사업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제도로, 주파수 자원을 분할 임대하는 방안을 권장
- 현지 통신사가 주파수를 임대해 지역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 서비스 제공하는 도매 방식
- ⇒ ECIP를 통해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회사는 FCC에 승인 요청, 적격성 심사 받아
- ⇒ FCC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 시 주파수 분할 임대 거래를 허용, 정책적 지원 제공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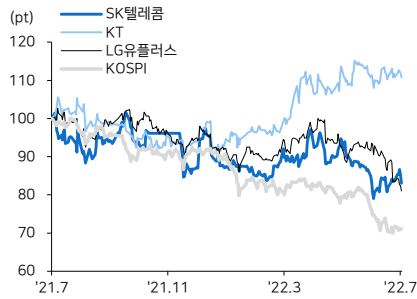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한국	SK텔레콤	53,500	8.9	13.1	13.7	1.3	1.3	0.8	0.9	4.2	4.2	4.0	4.1	8.8	9.3
	KT	36,600	7.2	19.5	20.2	1.4	1.5	0.9	1.0	4.2	4.3	3.1	3.0	8.2	8.6
	LG유플러스	11,950	4.0	10.9	11.3	0.8	0.9	0.6	0.6	2.7	2.8	3.3	3.2	9.2	9.7
미국	AT&T	20.6	147.3	128.0	122.8	23.7	24.5	18.3	18.2	42.5	43.2	7.9	7.8	11.8	11.1
	Verizon	51.0	214.3	136.8	139.4	32.3	33.8	22.1	23.2	49.2	50.9	7.5	7.2	24.9	22.8
	T-Mobile	137.4	172.2	81.4	83.7	8.5	13.6	3.5	7.7	27.3	29.6	9.0	8.3	4.4	11.4
일본	NTT	3,915	102.3	93.4	90.3	13.6	13.3	8.7	8.7	25.2	24.4	6.8	6.6	14.6	14.4
	KDDI	4,402	73.2	41.6	39.8	8.1	7.9	5.1	5.1	13.9	13.4	6.1	6.1	13.8	13.6
	Softbank	5,296	65.9	47.3	46.3	-1.4	4.4	4.4	3.7	4.4	11.3	49.7	18.3	4.7	2.5
중국	China Mobile	49.0	135.4	135.5	144.2	18.8	20.1	18.3	19.7	49.1	51.8	1.4	1.3	10.0	10.3
	China Unicom	3.7	14.4	51.7	54.6	1.9	2.3	2.4	2.7	14.8	15.4	0.6	0.6	4.8	5.3
	China Telecom	2.7	47.4	71.4	76.9	5.3	5.9	4.4	5.0	19.9	21.2	2.3	2.1	6.7	7.3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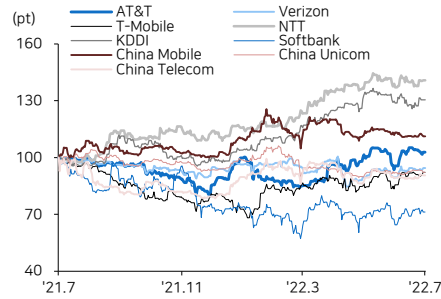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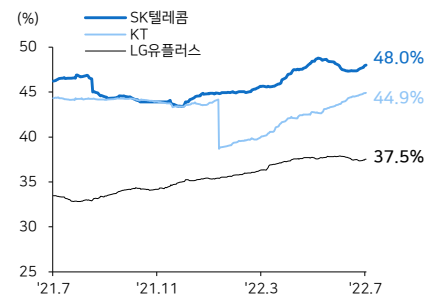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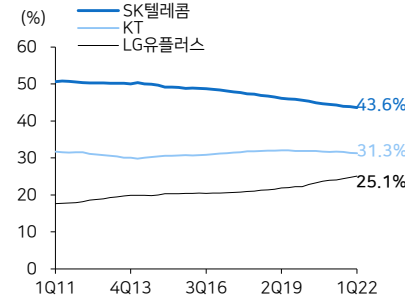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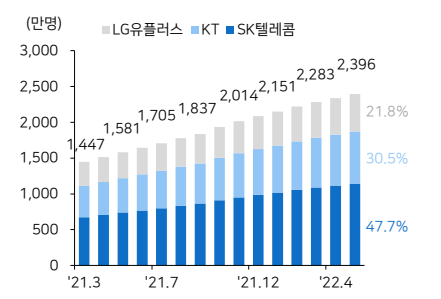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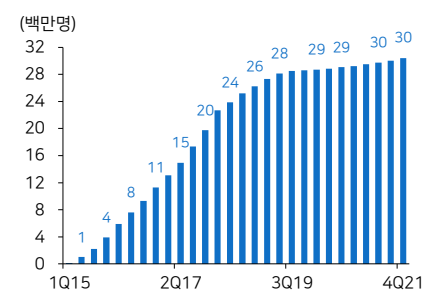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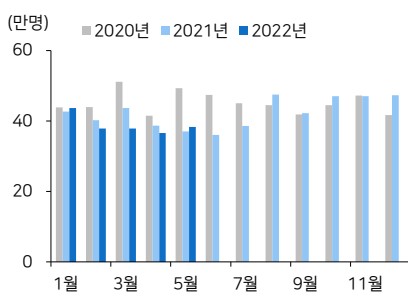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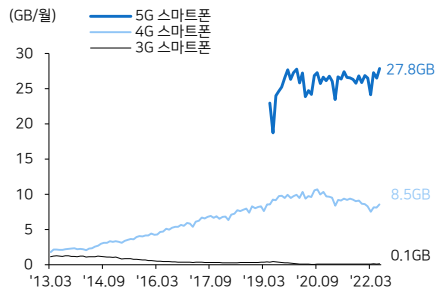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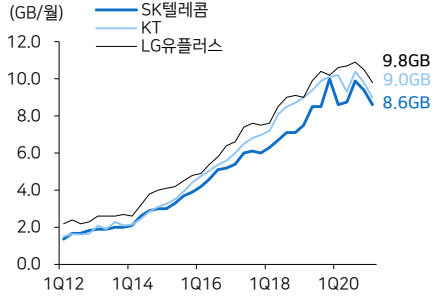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